

지면안내

02
보도

학생들 불만에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자리걸음'
... 대학본부 불만 종식시킬 수 있을까

03
사회

현실로 쏟아져 나온 청년들,
새로운 정치 주체로 떠오르다

04
문화

어디가야 제주도 와그네
좋은디 봤댄 소문나마심?

06
학술

훈민정음 창제,
그 주역은 누구인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상상관 지하 2층 체육관 및 풋살장 등지에서 총학생회의 주최로 낙산체전이 열렸다. 이번 낙산체전에는 ▲피구 ▲족구 ▲풋살 ▲농구 등 총 4개 종목이 치러져 각 종목별로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가렸다. 한편, 피구는 '역사', 족구는 '전자', 풋살과 농구는 '산공'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대의원총회서 중운위 예산 인준

지난 9월 24일, 미래관 DLC에서 '2019년도 하반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예산 인준을 안건으로 하반기 1차 대의원총회가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총 65명 중 6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가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에 찬성했다. 이에 이은미(IT응용 4) 총대 의장은 학생회칙 제3장 제24조 1항에 의거, 모든 안건이 가결됨을 선포했다.

먼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총 3,346,000원의 예산을 인준 받았다. 세부 항목으로는 ▲낙산제전 ▲학교 내부 복지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가 포함됐다. 총학은 예산 인준 외에도 '2층 여학생 휴게실에 비치할 소품 브랜드 확장'과 '상상관 7층 공용 휴게실을 남학생 휴게실로 사용하는 문화 조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총대의원회의 예산은 ▲대의원총회 ▲총선거 ▲페이스북 홍보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의 세부 항목을 포함해 총 1,505,000원으로 책정됐다. 학생복지위원회의 예산은 총 4,834,140원이 인준됐다. 이는 ▲간식배부사업 ▲야식배부사업 ▲물품대여사업 ▲Culture Day 이벤트 ▲추석 귀향버스 ▲캠페인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인문예술대학은 ▲시험기간 간식사업 ▲프린트 대여사업 ▲문화생활 장려

사업 ▲행사 및 일정 공지사업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인문예술대학 MT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를 포함해 총 4,028,950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다. 사회과학대학은 ▲시험기간 간식사업 ▲복지사업 ▲격려물품사업 ▲단선관위 필요비용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가 포함된 총 1,818,350원을 인준 받았다.

디자인대학의 예산은 ▲간식사업 ▲복지사업 ▲격려사업 ▲행사사업 ▲선거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를 포함해 총 2,038,280원으로 책정됐다. 또, IT공과대학의 예산은 ▲간식사업 ▲복지사업 ▲11월 총선거 ▲공대 MT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를 포함해 총 4,035,510원이 인준됐다.

이외에도 동아리연합회는 ▲개강자축파티 ▲교류전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가 포함된 총 1,054,400원을 최종 승인 받았으며, 감사위원회 예산은 총 300,000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질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총회를 진행한 이 의장은 "다음 총회에서는 더욱 활발한 질의가 있길 바란다"며, "통과된 예산이 학생회비를 내 준 학우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중운위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아 기자 mhbt0330@naver.com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실시... 서류 미비 등 5건 지적받아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재단) 및 한성대학교(이하 대학본부)의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재단과 대학본부는 감사단으로부터 각각 1건과 4건을 지적받았다.

그동안 교육부는 오랫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종합감사 및 회계부분감사를 시행해 왔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1년 8월 이후로 교육부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이번 감사 대상에 선정됐으며, 2016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회계를 감사받았다. 회계 자료로는 재단의 경우 ▲재산대장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 등이, 대학본부의 경우 ▲재무제표 ▲연도별 계약체결 현황 ▲연구비 관련서류 등이 요구됐다.

먼저 본교 법인사무국에 의하면, 재단은 감사단으로부터 '정관 변경 미시행'을 지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진(법인사무국) 팀원은 "본교 재단은 2017년부터 교보빌딩을 인수해 임대사업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은 거쳤지만 '정관 변경'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단에게 포착됐다"며 "재단도 이같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본부의 회계부분에서는 감사단으로부터 타 대학 대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교직원 인건비 관련 규정 미정립 ▲기자재 관련 서류 미비 ▲산학협력단과의 일부 회계 미분리 ▲특허 관리 미흡 등 4가지 사안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조윤철(경영기획팀) 팀장은 "교직원 인건비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바로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 자료는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며 최종적인 결과는 12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기자사령

임수습기자 안현경(사회과학 2) 여승규(인문 1)

동정란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신문사(418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상한 편집인김주찬 나은미 편집국장 장선아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 ⌂ ↻
☰ ☆

<한성대신문>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http://www.hansung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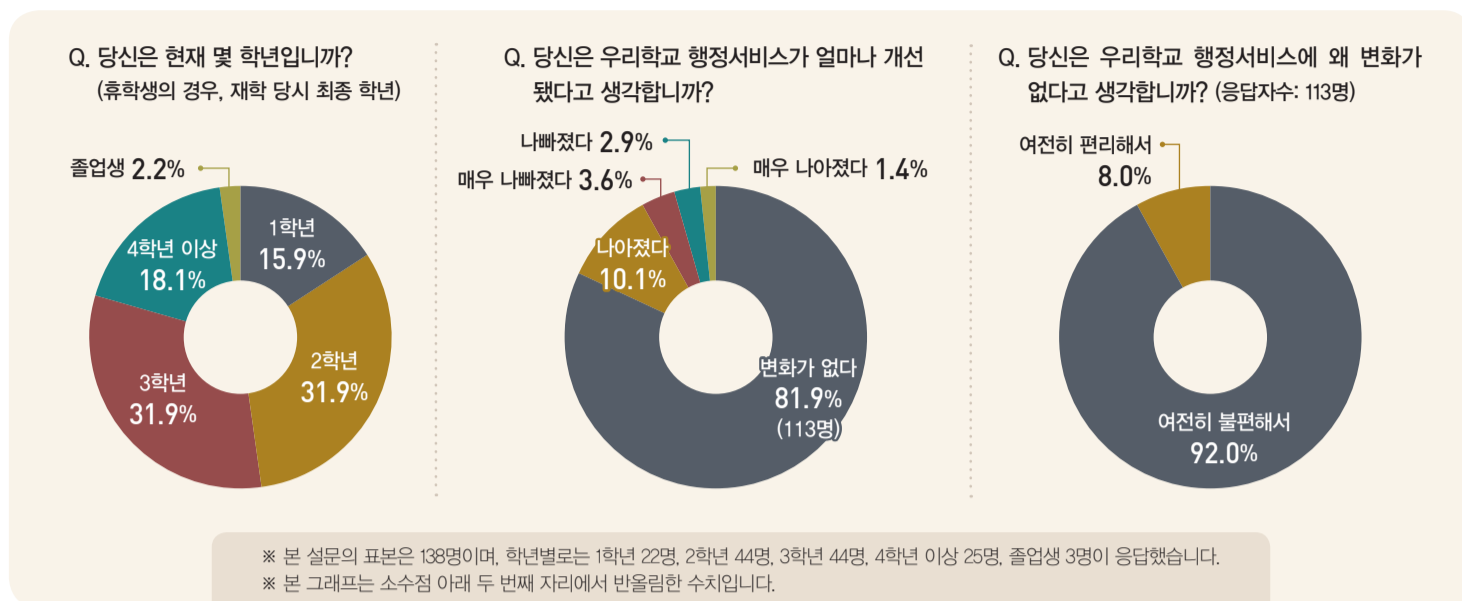
그외에도 <한성대신문>을
더욱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sungnews>
- 페이스북 페이지**
[@hansungpresscenter](https://www.facebook.com/hansungpresscenter)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https://open.kakao.com/hansungnews)
- 에브리타임 학교 소식**
 '한성대신문사' 게시판

학생들 불만에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자리걸음'... 대학본부 불만 종식시킬 수 있을까

지난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된 '우리학교 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생이 지난 조사 이후 우리학교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본사가 시행한 '우리학교 행정 만족도 및 신뢰도 설문조사' 당시, 대학본부는 행정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지만, 실제 학생들은 개선 정도를 체감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교직원 교육 및 평가를 이번 학기 내로 도입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학교 행정서비스의 개선 유무 응답은 '변화가 없다(81.9%)'가 월등히 많았으며, ▲나아졌다(10.1%) ▲매우 나빠졌다(3.6%) ▲나빠졌다(2.9%) ▲매우 나아졌다(1.4%)가 뒤를 이었다.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여전히 불편해서(92.0%) ▲여전히 편리해서(8.0%) 순으로, 전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만족도 조사의 응답은 '불만족(58.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매우 불만족(21.0%) ▲만족(18.1%) ▲매우 만족(2.2%)이 자리했다. 또한 이번 설문에서 두드러진 학생들의



불만사항은 크게 '행정 처리', '교직원 및 조교의 근무 태도'로 구분됐다. 행정 처리와 관련해 지적된 것은 ▲늦은 업무 처리 ▲담당자의 연락 두절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였다. 학교 행정 처리가 비효율적이라고 답한 한 학생은 "행정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는 장학금이 예정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되는 것이 당연시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학생은 "방중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 담당부서에 방문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오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다시 찾아가지만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고, 결국 2시가 돼서야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 부서에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했더니 자기 담당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연결해줬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도 똑같은 답이 돌아왔고, 처음 전화했던 부서와 다시 연락이 됐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황준식(학생장학팀) 팀원은 "월별로 지급되는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2018년 6월 이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

날짜에 맞춰 제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면학근로장학금은 선지급의 경우 한 학기 중 절반 지점의 주에 재무회계를 진행한다. 그러나 장학금 종류마다 회계를 넘기는 과정이 다르고, 심사절차가 복잡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라며, "후지급은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에 지급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 또한 공지한 기간 내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순선(총무인사팀) 차장은 "기존 학사제도가 개편되면서 각

행정부서가 책임지는 분야가 기존보다 넓어졌다. 민원의 종류도 다양해 모든 교직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간대에 전화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개선된 행정 처리를 체감할 수 있게끔 이번 학기에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학기에 업무의 매뉴얼화를 추진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지난 설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문에서도 교직원 및

조교의 불친절을 지적했다. 지난 설문이 진행된 1학기 당시 총무인사팀은 평가 체크리스트에 '친절성' 항목을 추가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 응대를 개선할 것을 시사했으나,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한 학생은 "궁금한 것을 담당부서에 문의했더니 오히려 '이런 걸 왜 물어보냐'는 답을 받았다. 학생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곳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불쾌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은 "인사고과가 1년에 1번씩 실시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친절성'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학기 중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고객 만족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문에서 학생들은 '학생이 교직원을 직접 평가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 차장은 "2007년 당시, 학생들로 구성된 서비스 모니터링단이 진행 방식 및 실효성의 문제로 실시된 지 1년이 채 안 돼 사라졌다. 따라서 이는 재도입이 어려워 이번 학기에 다른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sf1228@naver.com

익명 커뮤니티 성희롱 쪽지 논란...대학본부 "공론화 시 적극 대응 예정"

최근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성희롱성 익명 쪽지를 받은 학생들의 불만글이 폭주해, 가해 학생을 찾아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취재 결과 성적 모욕감을 주는 쪽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복수의 피해사례가 확인됐으나, 대학본부는 피해 학생의 신고가 없어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보에 의하면, 피해 학생 대부분이 성적인 것과 무관한 글을 작성했음에도 성희롱성 쪽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성별을 유추할 수 없는 글을 게재했지만 '섹X하자', '하자고 XIXX아'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 여러 번 차단했지만 마진까지였다"며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라고 짐작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이미 올해 초부터 비슷한 종류의 쪽지를 받았다. 그때마다 계정을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제는 평범한 댓글을 다는 것조차 불안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제보자 모두는 성희롱성 쪽지를 받은 후 커뮤니티 내 신고·차단 외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제보자는 "조치를 취해도 또 다른 성희롱 쪽지를 받을 것이 뻔하고, 익명의 특성 상 신고해도 잡기 힘들 것 같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교내 학칙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됐다. 우리학교는 학칙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 규정』 제19조 1항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며, 피해자에게는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우리학교 재·휴학생인 경우 학칙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상담센터 산하 양성평등상담소에서 성범죄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의 상담 후 사건을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팀에서 징계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본부의 입장이다. 피해 학생들이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학교 차원에서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생상담센터 측은 "기사 발행 후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다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사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학칙 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장예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익명 쪽지 특성 상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확보되지 않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본 쪽지의 내용은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 신문사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어렵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음란죄에 가깝다"

박희연 기자
heeyeun96@naver.com

제15회 한성공학경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9월 26·27일, 본교 낙산관 체육관에서 '제15회 한성공학경진대회'가 열렸다. 본 대회는 우리학교 공학도들의 창의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공과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제출한 작품과 논문을 선보이고 이중 우수작이 시상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최가예(기계 4)와 3명을 비롯한 35팀의 출제작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회에는 본교 공학교육개발센터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작품 및 논문이 출품됐다. 예비평가에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출품작에 한해 면접평가가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작품 33작, 논문 6편이

본 대회에 올랐다. 대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1일차에는 개회식 및 축하 다과회와 준비됐으며, 학생들이 관객에게 출품작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내부 심사위원 9명과 외부 심사위원 6명 등 심사위원 15명이 창의력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출품작을 심사해 우열을 가렸다.

2일차에는 전날 평가를 바탕으로 시상식이 진행됐다. 식에서는 ▲대상(1팀) ▲금상(2팀) ▲은상(6팀) ▲동상(7팀) ▲장려상(10팀) ▲논문 최우수상(1팀) ▲논문 우수상(1팀) ▲논문 장려상(2팀) ▲기업상(5팀) 등 총 35팀이 수상했다.

이중 '대량생산에 적합한 FDM 3D 프린터 제작'의 최가예(기계 4) 학생 외 3명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최 씨는 "대회를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분이 너무 좋다.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관한 최재봉(기계전자공학부) 공과대학장은 "이 작품들은 수년에 걸친 배움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학생들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연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승구 기자
love-fossil@naver.com

학술정보관, 독서아카데미 행사 개최

지난 10월 1일,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2019학년도 2학기 '테마가 있는 독서아카데미(이하 독서아카데미)'의 1차 강연이 열렸다. 독서아카데미는 흥미로운 테마 및 도서를 선정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는 학술정보관의 상상독서 프로그램이다. 이번 독서아카데미는 '영화와 인문학'을 테마로, 저서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을 출판한 원은정 작가가 강연을 맡았다.

강연은 ▲영화와 인문학의 연관성 ▲영화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에서 원 작가는 먼저 '인문학'이 무엇인지 정의하면서, '영화와 인문학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원 작가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주제로 영화를 인문학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영화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인물을 그린 영화다. 또한 그는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영화 속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 등 일상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길 바란다"며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최수빈(인문 1) 학생은 "강연 중 '영화 주인공의 다리 보조장치'가 도움과 함께 모두를 함유한다는 점'과 '보조장치를 인생에 빚대어 설명한 점'이

인상 깊었다. 2차 강연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광동화(학술정보관) 담당자는 "학생들이 강연에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테마를 정했다"며 "2차 강연은 '자존감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10월 29일에 진행된다. 앞으로도 학기마다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연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와 학술정보관에서 사용 가능한 상상독서 마일리지 20점이 부여된다.

안현경 기자
dksgsrud24@naver.com

현실로 쏟아져 나온 청년들, 새로운 정치 주체로 떠오르다

지난 10월 3일, 혜화역은 수백 명 청년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대학생연합의 주최 아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대학생연합 촛불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 집회는 조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대학생들이 연합하여 개최한 첫 오프라인 집회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과거 '진취의 상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소위 '정치 무관심층'으로 분류되던 청년 세대가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정치활동은 사회 곳곳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연세대학교에서는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부다", "금급하면 (학생이 매춘) 해볼래요?"와 같은 문제적인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을 구성해 연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SNS를 활용한 입장문 및 서명 운동을 진행해 많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집회는 실제 생협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기본급 3% 인상과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도출해내는 등 성과를 이뤄내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청년들이 걸어온 정치 역사에 있다. 과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은 이른바 정치적 격동기였다. 이 시절 학생들은 예비 지식인으로서 조직적인 정치행보를 보였다. 1964년 한일협정에 반대해 '6·3사태'와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에 반발한 '민청학련사건' 등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청년이 있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1987년 전두환의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6월 민주항쟁' 이후, 청년들의 정치적 움직임은 대대적으로 사그라들었다. 급기야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0세 이하 청년층의 투표율이 이 세대별 가장 낮은 수치인 평균 29.3%를 기록해, '정치에 관심 없는

세대'란 인식을 공고히 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들의 소극적 움직임이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진 사건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에서 ▲20대 76.1% ▲30대 74.2%의 투표율을 기록해, 제18대 선거 대비 각 7.6%p, 4.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50대 투표율과 비슷한 수치로, 청년들이 정치에 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청년들은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력을 견제하고자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교육 격차와 사회 격차 등이 점차 벌어지면서 각자가 공유하는 유대가 사라져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정적 계기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청년 세대 간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정치에 참여할 때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직접 행동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즉, 선택적 정치참여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의 청년들은 기존 집단적으로



▲지난 3일, 전국대학생연합의 주최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대학생연합 촛불집회'가 열렸다. 청년 참가자들이 LED 촛불과 함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움직였던 형태보다, 본인이 원하는 정치활동에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정치참여 방식 역시 학내 대자보 게시를 비롯해 위원회 설립, 집회 참여, 서명운동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SNS를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펼치는 등 이들의 활동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처럼 지난 5월,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개강 총회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남자 대면식 사태'에 관해 서명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은 릴레이로

다음 주자를 지정해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약 4만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청년 정치활동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임 교수는 "청년 세대가 사회 주체로서 정치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다면 현 사회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차츰 해결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적 이슈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정치 활동이 자칫 정파적인 사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지나친 언론화로, 그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 교수는 "특정 집회가 개최됐을 때, 과연 집회에 참여한 모두가 동일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동진(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정치 형태는 여론 지형상 유리한 부분에 편승하는 측면이 있다"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고 답했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서울시와 청년의 동상이몽, '역세권 청년주택' 실효 거둘 수 있을까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 시행으로 강변역, 충정로역 등 서울 변화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는 201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른바 '지옥(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며 마땅한 주거지에 정착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청년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주를 지원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의 범위를 늘리는 등 청년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노력이 무색하게, 사업 초반부터 제기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실제 수혜 대상이 돼야 할 저소득층 청년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청년 단독 가구의 임대료 과부담 비율은 RIR* 20% 이상이 56.9%, RIR 30% 이상이 37.0%다. 이는 '청년+부모가구' 등 다른 형태의 청년가구 임대료 과부담 비율 평균이 RIR 20% 이상 44.9%, RIR 30% 이상 20.3%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한, 서울지역 오피스텔 평균 임대료와 비교해봤을 때,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직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평균 실거래가는 ▲전용면적 20㎡ 이하는 보증금 2723만 원, 월세 44만 원 ▲전용면적 20~30㎡ 이하는 보증금 2947만 원, 월세 52만 원 ▲전용 30~40㎡ 이하는 보증금 3707만 원, 월세 62만 원이다. 그러나 지난 9월 청약 접수를 받기 시작한 충정로 일대의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은 3000만 원 중반에서 1억 원 초반대로, 월세는 최대 70만 원 후반대까지 책정됐다. 보증금만 보더라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평균보다 최대 3배 이상의

금액대를 형성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동수(청년정치쿠루) 대표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하지만, 1억 원대의 보증금은 사회 초년생 혹은 대학생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왜 '역세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변화가 주택을 짓다 보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론 어느 정도의 편리도 보장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세권의 편리함이 아니라 싼 가격의 보금자리다. 일단 주거 문제를 해결한 후 질을 논해도 늦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서울시는 45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쓴 소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 이 대표는 "급한 불을 꺼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애초에 낮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역세권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RIR(Rent-to-Income Ratio)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7월 사건 리고 지금

가리앉은 '선박안전법', 법과 현실의 불협화음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검찰은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화물 과적·과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등 선박 소유주(이하 선주)의 불법 행태와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에 있다고 밝혔다.

참사 이후, 해양사고 안전관리의 대책으로 '선박안전법'의 개정이 꾸준히 진행됐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안전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참사 이전에 '규제가 완화됐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2009년에 선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던 규정이 폐지되고, 여객선 운항 가능 기간 역시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후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감독 아래 선박구조 개조 시 변경 전·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여객선이 운항 가능한 기간을 다시 25년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300t 이상의 연안여객선에는 선박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선박항해기록장치(VDR)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해상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돼, 해수부 소속 감독관들이 선사·선박을 직접 지도 및 감독하도록 개정됐다.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선박 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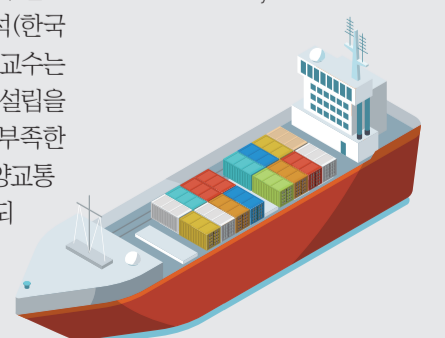
개조 등의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는 선주의 면피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해양사고 발생척수 및 건수 현황'에 따르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1,330건 ▲2015년 2,101건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으로 줄기는커녕,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양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는 5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선체의 무리한 증축을 유발하는 과적·과승은 이번 단속에서 84건(16.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세월호 참사의 주원인이었던 불법 행태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양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교통안전의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석(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은 전담 기관 설립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해양교통안전 관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선주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사고에 대한 해기사(선장, 항해사, 기관사)의 처벌 대부분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징벌유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운항을 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 이에 맞춰 해기사 처벌에 해당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윤창호법의 영향을 받아 해상에서도 음주운항에 관한 법 개정이 발의된 것이다. 만일 발의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항 처벌 기준은 3단계로 나뉘고,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에서 10년 이하로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질 예정이다.

박희연 기자
heeyeun98@naver.com





어디가야 제주도 와그네 좋은디 봤덴 소문나마심?

〈편집자주〉

‘어디가야 제주도 와그네 좋은디 봤덴 소문나마심?(제주도에서 어디가 구경하기 좋나요?)’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모든 곳이에요.” 취재차 방문한 제주도가 감탄사를 남발할 정도로 다-아 좋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 기자가 고심 끝에 선별한 제주도의 관광지를 소개한다. 고르고 고른 알맹이를 제주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 관광지과 제주 문화 볼 수 있는 ‘문화’ 관광지로 나눠 가져왔다. 혹시 제주도의 산뜻한 바람을 맞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기사를 주목하자.

이기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제주 보고, 숨 고끼키여!

숨 고끼키여(숨 넘어간다)!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절경인 제주를 보며 이 기자는 연신 ‘대박’을 외쳤다. 차마 카메라 프레임 만으로는 그 감동을 담을 수 없는, 아름다운 제주도의 경관을 보고 싶다면? 고민하지 말자. 자신있게 추천하는 제주도의 관광지를 소개한다.

제주의 랜드마크, ‘성산일출봉’

제주도의 손꼽히는 랜드마크 중 하나인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은 동부 해안가를 향해 가다보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보이는 산봉우리다. 이곳은 약 5,000년 전 일어난 화산 활동과 오랜 풍파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성산일출봉을 먼 발치에서 주변 풍경과 함께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일출봉의 제대로 된 진가는 정상에서 볼 수 있다. 가파른 계단 길을 거쳐 다다른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박수가 절로 나오기 때문이다.

성산일출봉은 일출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일출봉(日出峰)’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여진 것이 아니다. 멋진 일출을 촬영하고 싶다면 성산일출봉 옆에 위치한 ‘광치기해변’으로 향하자. 누엠티엠티오는 동과 햇빛으로 반짝이는 해변의 모래알, 이에 더해 성산일출봉을 한 눈에 담아 제주의 멋진 일출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해의 마지막 날, 이곳에서는 ‘제주 성산일출축제’가 개최된다. 이 축제는 12월 31일 밤, 새해 카운트다운이 끝남과 동시에

불꽃놀이를 쏘아 올려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

‘톡’하고 돌출된 ‘섬지코지’

위로 ‘쑥’ 튀어나온 성산일출봉에서 옆으로 난 해안가를 걷다보면, 옆으로 ‘톡’ 튀어나온 ‘섬지코지’가 나온다. ‘코지’는 육지에서 바다로 돌출된 곳을 뜻하는 제주방언이다.

실제로 섬지코지는 바다 쪽으로 2km 가량 돌출된 제주도의 대표적인 곳 지형이다. 제주 동부 해안에 불록 튀어나온 섬지코지에서 보이는 성산일출봉과 푸른 하늘,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안풍경은 제주도라는 섬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취가 가장 잘 느껴지는 모습이다.

“나 홀로 제주를 집필한 장은정 작가는 이곳에 대해 ‘섬지코지는 사계절 중 언제 찾아도 좋지만, 특히 봄철의 유채꽃밭이 아름답다’며 “등대에 오르면 바다와 함께 성산일출봉까지 조망할 수 있다. 제주 바람을 느끼며 산책하기에 제격”이라고 추천했다.

또한, 섬지코지는 아름다운 경관 덕에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특히 드라마 ‘올인’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역새 파도가 반겨주는 ‘산굼부리’

어디서든 ‘바다’로 향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특별한 바다가 있다. 바로 ‘산굼부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역새의 바다다. 이때 가득 피어난 역새가 이루는 은빛 물결은

푸른 하늘과 색채적 대비를 이루며 멋진 경관을 연출해낸다.

역새 바다를 보기 위해서는 분화구 정상에 다다라야 하는데,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아 금세 정상에 이를 수 있다. 산굼부리에서는 역새뿐만 아니라 정상에 비치되어 있는 망원경으로 주변의 성산일출봉이나 오름 같은 다양한 경관을 자세하게 눈에 담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에 대한 안내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친절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장 작가는 “산굼부리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만끽하려면 가을을 기다려야 한다”며 “황금빛으로 물든 역새가 바람을 만나 춤추면, 산굼부리는 제주에서 가장 근사한 오름이 된다”고 설명했다.



▲광치기해변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 광치기해변의 녹색 이끼와 성산일출봉이 연출하는 장관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바닷가 절벽에 늘어난 기암괴석과 새하얀 방두포 등대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풍경을 만든다.



▲산굼부리의 역새는 10월이 되어서야 완전히 핀다. 만개한 역새를 보고 싶다면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역새가 폈는지 확인해 보자.

제주 문화, 왕 방 감서!

어떤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문화를 간파해야 하는 법.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까. 제주도의 문화는 유독 타지역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다.

독특한 제주 문화를 보며 ‘우와’를 외친 이 기자. 그 중에서도 제주도의 순박한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 관광지를 소개한다. 제주 문화, 왕 방 감서(와서 보고 가세요)!

제주 만물상, ‘제주동문시장’

제주동문시장(이하 동문시장)에서는 다른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오메기떡’, ‘옥돔’, ‘빙떡’ 등의 특산품과 각종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어, 제주도의 식문화를 가장 밀접하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사시사철 각각 다른 맛과 가격으로 유명한 굴도 만나볼 수 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면 동문시장은 ‘야시장’이라는 옷으로 갈아입는다. 낮 시간에는 수산물과 같은 식재료를 판매했다면, 야시장에서는 ‘전복감밥’, ‘전해향 아이스크림’, ‘흑돼지 볶음밥’ 등 제주에서 생산된 재료를 만든 먹거리를 판매했다. 이 기자가 동문시장을 찾았을 때, 이 기자의 주변에는 청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거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전승호(35) 씨는 “요즘 시장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다. 동문시장이 야시장으로 유명해져서 많이들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두맹이 골목’

현지인 삶을 제대로 들여다 보고 싶다면, 그들의 주거 문화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골목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말이 쉽지, 낯선 제주도의 땅에서 별안간 골목에 들어가서 길이나 잃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기자가 간 ‘두맹이 골목’은 조금 다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이 골목은 제주도 사람들의 인심이 묻어 있는 관광지다.

돌이 많아 ‘두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골목은 한때 제주 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였으나, 제주 지역의 대학생과 지역인근 초등학생이 추진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재탄생했다. 현재 두맹이 골목은 2009년 7월 제주시가 선정한 ‘제주시 숨은

비경’ 31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될 만큼 제주도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골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골목에 대해 장 작가는 “두맹이 골목에 그려진 그림에는 오래된 추억이 있다. 부모님의 사진첩에서 본 듯한 그림들,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만화 캐릭터도 찾아볼 수 있다”며 “다채로운 그림이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언급했다.

해녀의 이야기, ‘해녀박물관’

‘해녀’는 별도의 장치 없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주도가 ‘여자’, ‘바람’, ‘돌’이 많아 삼다도(三多島)라고 불릴 만큼, 해녀는 제주도의 구성원 중 하나로서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해녀박물관’을 둘러본다면, 막연하기만 했던 제주도의 문화가 한껏 가까게 느껴질 것이다.

해녀박물관은 제주해녀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제1전시실’, 제주해녀들의 바다 일터와 역사, 공동체를 살펴볼 수 있는 ‘제2전시실’, 해녀들의 생애를 전시한 ‘제3전시실’로 구성돼 있다. 또한, 별도의 공간에서 관람 가능한 해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은 감동을 자아낸다.

장 작가는 “제주도에는 많은 박물관이 있지만 그중 딱 한 곳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해녀박물관을 꼽는다”며 “해녀박물관은 해녀의 고단했던 삶과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시하고 있다. 해녀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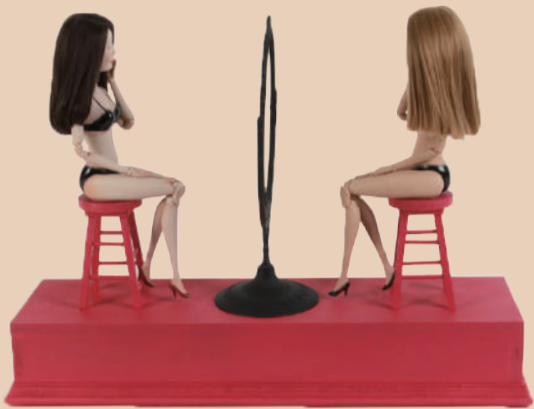
▲제주동문시장의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음식이 판매된다. 인기있는 가게는 줄이 길어 사전에 먹고 싶은 음식을 정해가는 것이 좋다.



▲두맹이 골목의 건물 외벽에는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중에는 추억을 환기하는 그림뿐만 아니라 제주를 상징하는 그림들도 만나볼 수 있다.



▲해녀박물관에 있는 제주해녀의 일터를 묘사한 모형이다. 이외에도 해녀가 사용하는 물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대부분 해녀들이 직접 기부한 물건들이다.



아름다움을 향한 뒤틀린 시선, 그곳에서 나를 엿보다

도예가 김주주

도예가(陶藝家) 진흥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어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김주주'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김민주(29) 도예가 역시 그 중 하나다. 그는 여는 예술인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티스트지만, 그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독특하다 못해 독보적이기까지 하다. 인형 도예를 통해 아름다움을 재탄생시키는 김 작가의 예술 속으로 산책을 나서보자.

김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다. 또 화려하고 예쁜 연예인의 모습을 동경해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외형을 닮고자 직접 옷을 재단하는 등 아름다움에 가까워지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했다. 그러던 중 그는 남성의 외모보다 여성의 외모를 더 강조하는 사회 현실에 의문이 들었다.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에 허무함을 느꼈어요. 물론 남성들에게 강조되는 외적 기준도 존재하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외적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다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을 인형으로 표현하면 어떤가 생각했어요."

그는 아름다움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처럼, 평범한 체형과 외모도 '하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인형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다. 이에 그는 보편화된 체형과 외모가 정해져있는 '바비인형'이야말로 다양한 아름다움의 형태를 가장 극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느꼈다. 그때부터 그는 바비인형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다.

"사실 바비인형은 사람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이상적인 몸매를 가졌잖아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9등신의 바비인형을 동경하고요. 그런데 저는 고정된 아름다움의 기준을 허물고 싶었어요. 날씬하고 완벽한 비율만이 아름다움의 전부 아니니까요."

특이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본인의 얼굴을 입혔다. 작업 초반 실제 바비인형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 작업했으나, 획일화된 표정이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인형에는 그의 얼굴이 입혀졌다.

작품에 대한 그의 애정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그가 제작 과정 중 인형의 살과 표정 등을 표현하는데 큰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형을

만들 때 작품을 흠으로 빚어 구워낸 뒤, 직접 인형의 표면을 마감 처리하여 실제 사람처럼 보이도록 시간을 쏟아 붓는다. 그래서일까, 그의 인형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일게끔 한다.

"흠은 성질이 변형되기 쉬운 재료인 만큼 많은 정성이 들어가요. 저 역시 아직까지도 흠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은 플라스틱이나 레진으로 만들어진 인형보다 깊이감이 느껴지고 시간이 흘러도 변색이 없답니다."

한편,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에게도 한때 고민이 있었다. 바로 생계유지였다. 여타 작가들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작품 활동 외에도 다른 생업을 병행하는 것이 흔하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두 가지 일을 겸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작품 활동과 병행하며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택한 방법은 상품 판매였다.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술계에선 작가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이에 그는 예술적인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오일램프를 시작으로, 와인잔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사업이 커지면서 사업장인 '김주주 스튜디오'도 오픈해 어엿한 대표로 자리 잡았다. 그 덕에 그는 작품 활동을 수월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상품 판매를 통해 전시회를 진행할 때와는 다른 즐거움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최근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바로 근육질 몸매를 가진 여성이다.

"조만간 근육질 몸매의 여성 인형을 제작할 계획이에요.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생긴 남성의 몸은 남자답다, 멋있다고 표현하지만 근육이 있는 여성의 몸은 '징그럽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잖아요. 제 작품이 여성의 근육은 '징그럽다'는 편견을 깬다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에게 여성의 근육도 아름다움의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본인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깨고자하는 그의 의지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어떤 작가가 되고 싶냐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변 역시 이와 비슷했다.

"틀에 박히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여성만 표현하고 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모습을 표현할 예정이에요.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나다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길 바라요."

박희연 기자
heeyeun96@naver.com



▲인형의 발색을 위해 작업하고 있는 김민주 작가



▲《비만주주》, 도자기, 13×8×43cm, 2015



▲《맞춤육체》, 도자기, 26×13×23cm, 2014



▲《Conflicting Fatty Juuju》, 도자기, 13×10×16cm, 2019



▲《Want to be》, bisque, 가변설치,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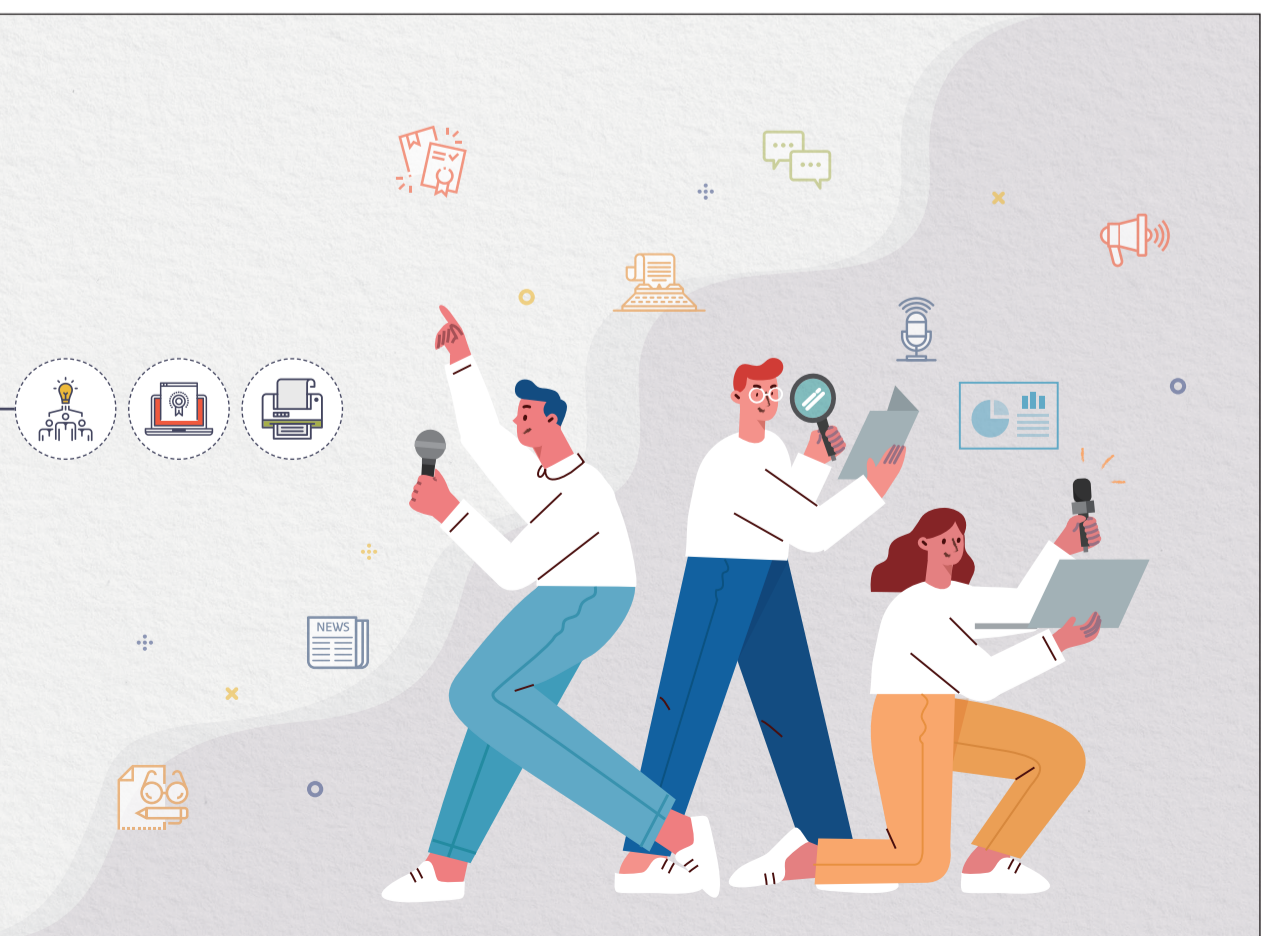
제보, 칼럼 모집

《한성대신문》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Tel. 02)760-4186

E-mail. hansungnews@gmail.com



훈민정음 창제, 그 주역은 누구인가?

우리의 문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던 시절, 문자는 곧 지식이었고 지식은 곧 권력이었다. 생계를 잇기 급급했던 백성들은 문자를 배울 수 없었고, 무지로 인해 불합리한 일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세종이 우리의 문자를 만드니, 그것이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訓民正音)'이다.

그런데 최근 훈민정음 창제를 다룬 영화 <나랏말싸미>가 개봉하면서, 훈민정음이 세종의 단독 창제물이 아니라는 설이 주목받고 있다. '해각존자 신미대사'라는 스님이 창제 과정에서 세종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외에 문종 혹은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과 함께 훈민정음을 공동 창제했다는 설도 있다.

훈민정음의 창시자, 세종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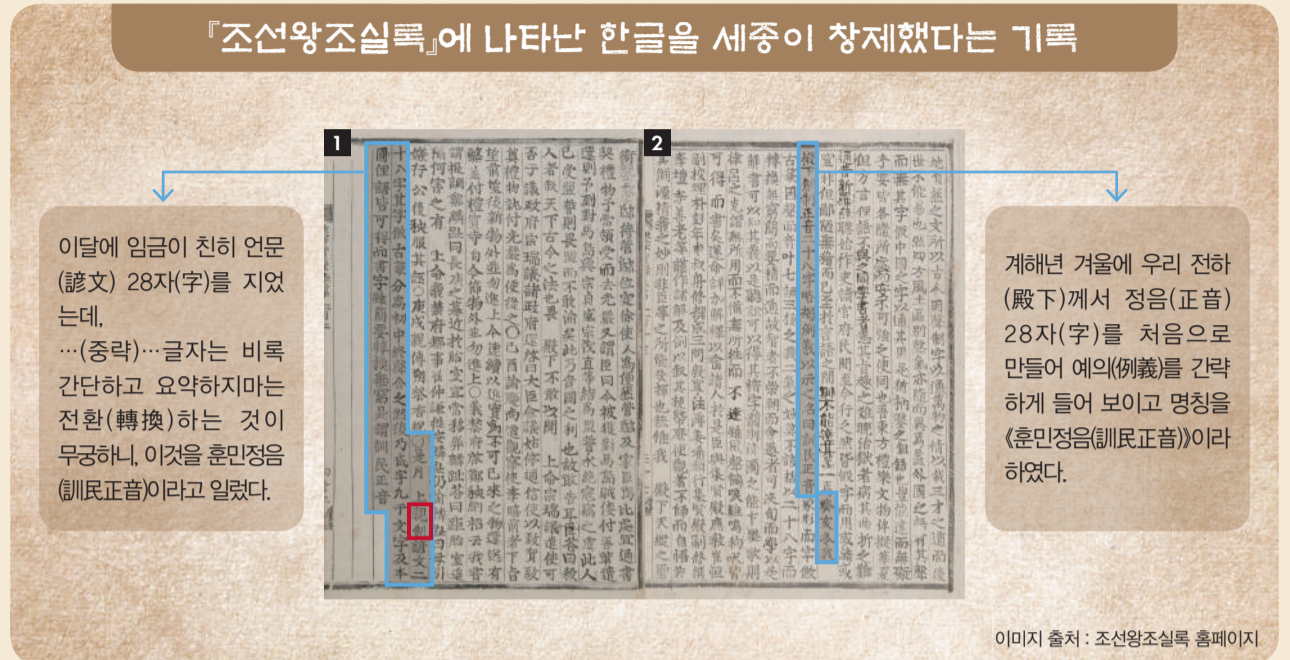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진호(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당시의 모든 사료(역사적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훈민정음은 세종의 단독 창제물이 맞다"고 단언했다. 우리학교 이상혁(상상력교양교육원) 교수 역시 "세종이 훈민정음을 단독으로 창제했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이나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한글 창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세종실록』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으니..."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원문을 보면 이 구절에서 '친제'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친제에서의 '친'은 임금이 직접, 손수 만들었으며, 누군가에게 명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세종이 직접 저술한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이다. 세종은 이 글에서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중략)...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라고 서술했다.

이에 대해 김슬옹(훈민정음연구소) 소장은 "세종이 직접 창제 동기를 기술하면서 '내가 만드니'라고 한글 창제 주체를 밝힌 것은 세종의 단독 창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며, "다른 주체와의 공동 창제설이 맞다면 이 말을 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에서도 '우리 전하께서 친히'라는 표현을 사용해 세종 친제를 밝히고 있다"고 역설했다.



▲ 1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2월 30일 기사. '친제(親制)'라는 표현을 통해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을 지었음을 드러낸다. 2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기사.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을 언급했다. 여기서 '우리 전하'는 세종을 뜻한다.

공동창제설의 단초와 그 진실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된 '신미대사'는 어떤 연유로 등장하게 된 것일까. 김무봉(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불경 언해본 간행 작업의 중심에 신미대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은 유교 국가를 표방했지만, 기층민중들 사이에서는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불교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 불교 경전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따라서 이를 종중하기 위해 불교 경전 번역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번역 초기 단계에 신미대사가 활발히 참여했다는 것이다. 신미대사가 번역에 참여한 불경 언해본의 대표적인 예로는 1447년 즈음 간행된 『석보상절』이 있다.

김 교수는 "번역이라는 것이 고난이도의 작업이라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다면 언해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신미대사가 창제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많은 불경 언해를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듯하다"며

"그가 창제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불경 언해를 통해 훈민정음의 확산과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종이 공동 창제했다는 설에 대해 이 교수는 "문종은 '조력자'일 뿐 공동 창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직해동자습』* 서문에 "우리 세종과 문종께서 이를 딱하게 여기시어 이미 훈민정음을 만드시니..."라고 문종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문종에 대한 이야기는 사료를 통틀어 이 문서에 단 한번 나타나 공동 창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집현전 학자들과의 공동 창제설 역시 마찬가지다. 이 교수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확실하다.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든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답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을 보면, "...마침내 상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臣)이 집현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맹년과 신숙주, ... (중략) ...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를 지어..."라고 서술했다. 이 글로써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의

명을 받아 함께 해례본을 저술했음을 밝혔다. 이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명백함에도, 왜 공동 창제설이 제기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뛰어난 문자를 왕이 혼자 만들었을 리 없다는 작은 의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 창제설은 모두 정황 증거 내지는 단편적인 기록에서 비롯된 추측일 뿐이다. 세종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훈민정음을 세종이 단독으로 창제했다는 '친제설'은 가장 객관적 사료인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거한 변함없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직해동자습』: 조선전기의 문신들이 시문을 모아 편찬한 시문선집 『문신선에 실려 있는 성삼문의 글. 현재는 원본이 전해지지 않는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궁금한성(性)

우리 선조와 동행한 '성', 그 흔적을 찾아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중 하나인 '성'. 우리는 그림, 음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성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처럼 인간이 성을 표현하려는 움직임은 과거부터 계속돼 왔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몸짓, 예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성을 형용하려 했다. 그 중에는 성을 맡겨 표출하는 시대도 있었고, 반대로 성적 표현이 금지시된 때도 있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표현 방식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조상들의

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과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선조들은 '성'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권력과 풍요의 상징

우리 민족이 본격적으로 '성'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문자가 없어 그림이나 암각화 등을 통해 고대인들의 성관념을 짐작해볼 수

있는데, 울산 울주군 소재의 반구대암각화(국보 제285호)가 좋은 예시다. 이 암각화에는 한 남성이 성기를 드러낸 채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성희(실학박물관 학예팀) 학예연구사는 "선사시대의 민속자료를 통해 당시의 성관념을 추측해볼 수 있다"면서 "이때는 다산이 곧 경제력이며 국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성적 표현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즉, 의도적으로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다산을 기원했다는 것이다.

삼국시대에서도 고대인들의 성적 표현은 서슴없었다. 고려시대 일연이 집필한 『삼국유사』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신라인들의 솔직한 성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지철로왕조'에는 신라 지증왕의 남궁이 1척 5촌(약 45cm)이나 돼 마땅한 왕후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성기 크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점은 당시 지증왕의 왕권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 학에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삼국시대에는 이같은 성적 표현이 권력을 상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표현은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시대

에도 이어졌다. 고려시대 총렬왕 때 지어진 가요(쌍화점)의 가사 중 "회회(회회)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중략)... 그 집(술집) 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중략)... 그 자리(예집) 나도 자라 가리라"라는 구절을 해석하자면 서양 무연인을 의미하는 회회아비와 술집아비가 여성의 손목을 잡는 등 애정표현을 시도하고 여성이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이에 응하는 것이다. 이는 성관계에 우호적인 고려시대의 성풍속이 가요에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

유교사회 속에서도 피어난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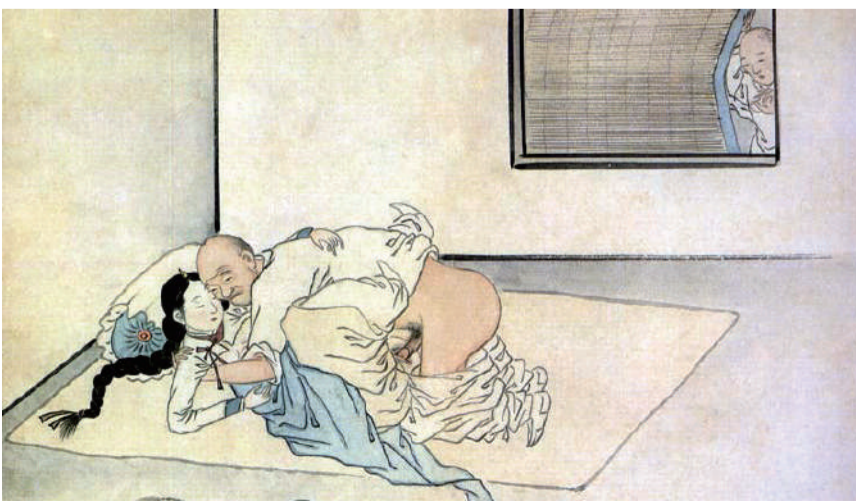
불교가 성행했던 고려시대가 막을 내리고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전까지 자유로웠던 성적 표현에 제동이 걸렸다. 유교의 영향 때문이다. 물론 조선 초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은 후 성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유학자들인 사림파가 집권했고, 그들은 조선이 명실상부 '유교' 국가임을 만천하에 알렸다. 더군다나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 지배층인 양반들의 성에 대한 통념은 더욱 보수적이고 엄격했다.

정 학에서는 당시 사회에 대해 "조선의 도덕윤리는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는 등 성적 표현이 제한했던 시대였다"며 "이때에는 성을 쾌락이라 생각하지 않고 대를 잇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욕구를 계속 억누르다보면 언젠가 풍선처럼 터지기 마련이다. 조선 중·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어떤 방식이든 성을 형용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됐고, 급기야 판소리, 풍속화 등을 통해 '성'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서민들은 <춘향가>, <변강쇠가>와 같은 노래를 불렀고 수많은 명화를 남긴 화가 김홍도, 신윤복은 풍속화의 한 갈래인 춘화를 그렸다.

이에 정 학에서는 "조선 중·후기에 서민문화가 발달하면서, 일부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모두가 판소리나 그림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성적 표현도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다양한 장르로 표현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 후기에는 성도 인간의 삶 중 하나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전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김홍도가 그린 춘화. 자료 제공: 한국성과학연구소

· 삼 학 송 ·

‘좋은 리더’의 조건

가을이 불속 고개를 내밧고 동시에 <한성대신문>도 벌써 이번 학기 세 번째 발행을 맞이했다. 편집국장의 교체로 풍파와도 같았던 시기를 거쳐 한 학기 발행일정 중 정확히 절반에 와있는 현재, <한성대신문>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물론 온전히 안정을 찾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자명한 사실은 본인이 드디어 편집국장으로서의 일상을 익숙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 내부 사정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필자 본인을 오랜 시간 괴롭혔던 ‘리더라는 자리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떨쳐낸 지도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 하나가 있다. 자기 편집국장 선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최고 고민인 ‘좋은 리더란 과연 무엇이나는 것이다.

통상 리더십이란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즉, 리더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여기서 영향력이란 강제성 없이, 본인이 의도한 바를 상대가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해보이나, 수많은 리더들이 이 지점에서 우를 범하고 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세계에 가두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을 통칭하는 용어까지 생겼으니, 바로 ‘꼰대’다.

우리는 꼰대를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말이다. 본인만 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경험했던, 리더 행세를 하는 꼰대를 기억한다. 그는 자신의 병을 발미로

모든 구성원이 그에게 맞출 것을 바랐고, 이에 불응하거나 실수가 있을 시에는 비난으로 답했다. 또한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해 자신의 오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기만’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늘 “젊은 꼰대도 꼰대”라며 자신은 마치 꼰대가 아닌 양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그의 꼰대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에 불과했다.

이렇듯 리더와 꼰대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좋은 리더’란 ‘꼰대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단언할 수 없지만, ‘꼰대가 아닌 사람’은 적어도 꼰대 육하원칙(내가 누군지 알아, 뭘 안다고, 어딜 감히, 내가 왕년에, 어떻게 나에게, 내게 그걸 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무수한 답 중 하나일 뿐, 이를 위한 유일한 정답은 없다. 집단마다 그 집단의 성격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리더상이 있지만 이 또한 정답은 아니다. ‘삼국지’의 유비, 조조, 손권이 처한 상황 및 시기에 따라 각각 덕성, 지략, 중용의 대가로 평가되듯이, 요구가 충족되더라도 매 상황에 따라 좋은 리더의 기준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진리에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며 상자 밖으로 탈출하는 자에게만 누군가에 마땅히 영향을 미칠 자격이 주어진다. 자신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자 말이다.

장선아 편집국장

■ 의화정

“다문화가 무엇이지요?” 이민·다문화트랙 1학년 첫 수업에서 나는 항상 이 질문을 한다. 학생들은 처음에 머뭇거리다가 “다문화”하면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말해 보라고 이야기하면, 한 명씩 말하기 시작한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다문화가정 자녀’, ‘결혼이민자’, ‘동남아시아’ 등이다.

다문화(多文化)라는 한자를 해석하면 ‘많은 문화’ 혹은 ‘다양한 문화’ 정도가 된다. 국어사전에서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이를 정의한다. 사전적 의미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나 동남아시아가 거론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연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중·고등 학생들은 “너 다문화야?”, “개 다문화니?”

라는 식으로 ‘다문화’를 결혼이민자 자녀와 동의어로 사용하곤 한다.

국내에서 다문화가 동남아시아 출신 국제결혼 가정을 연상시키는 이유는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관련이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하자 정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정책이란 미명하에 외국인의 국내 적응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이때 우선적 수혜 대상이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해당 가정에 교육,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정책의 주요 내용이었다. 명시적으로 출신국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수혜자의 다수가 동남아시아 출신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다문화정책 대상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다문화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이다. 따라서 일반인

들은 다문화라는 용어에서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떠올리기 쉽다.

문제는 다문화정책의 목적이 외국인의 국내 적응 지원을 통해 한국인과 이민자의 융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는데, 한국인들이 다문화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이야기고 자신과 상관없는 단어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한 교수님께서 복학생들이 트랙제 도입 이후 등장한 이민·다문화트랙을 보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트랙으로 생각하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웃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다문화를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즉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인식한 데에서 온 오해라 할 수 있다.

다문화는 결혼이민자 가족 이야기가 아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특징을 일컫는 말이다.

오정은(예술학부 이민·다문화) 교수

■ 기사수첩

“스탠다드가 아니어도 나는 행복해.”

만약 ‘위스키’와 ‘담배’, ‘집’ 중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야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위스키나 담배를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영화 <소공녀>의 주인공 미소는 집을 포기한다. 일당으로 인상된 월세와 담배값을 감당할 수 없자 집을 포기하고 담배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대학시절 친구들을 만나 자신을 재워줄 것을 부탁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동정어린 눈빛이었다. 자신의 선택이 그렇게 이상하냐는 미소의 물음에 한 친구는 이렇게 답한다.

“스탠다드는 아니지.” 친구의 대사에 등장하는 스탠다드는 ‘집’을 의미한다. 미소처럼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집을 선택하는 것은 ‘정상’, 집 대신 담배와 위스키를 선택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친구들은 집을 포기한 미소의 삶이 당연히 불행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정작 그녀는 불행을 느끼지 않았다. 미소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집이 아닌 담배를 선택한 것이지만, 친구들은 집이 없다는 이유로 멋대로 그녀의 삶을 판단한 것이다.

집은 하나의 예시일 뿐, 우리사회가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는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학교는 졸업했는지, 회사는 다니는지, 결혼은 했는지 등... 우리사회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놓고, 이와 다른 길을 걷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 단정 짓는다.

기자 또한 사회가 정해놓은 행복을 위해 살았다. 고등학생 시절, 어른들의 말에 따라 성향과 맞지 않음에도 취업을 잘된다'는 이과를 선택했다. 달콤한 미래를 꿈꾸며 공부했지만, 이과 공부는 정말이지 고역이었다.

물론 부모와 교사에게 이런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조금만 참으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결국 기자는 스스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 좋아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문과로 전과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온갖 ‘충고’에 시달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아깝다, ‘취업 준비를 할 때 이 선택을 빼지 않게 후회할 것이다’ 등 사람들은 멋대로 미래를 점지했다.

그들이 걱정하던 미래에 와있는 지금, 나는 행복하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활동도 마음껏 하고 있다. 누군가가 “너의 인생은 스탠다드는 아니야”라고 말하더라도 당당하게 외칠 것이다.

“스탠다드가 아니어도 나는 행복해.”

이가연 기자

읽으면 보이는 초성퀴즈

- ※ 이번 신문의 주요 키워드를 담은 초성퀴즈입니다.
- ※ 정답을 아시는 분은 11월 8일(금)까지 정답양식을 작성하여 한성대신문사 카카오톡 채널(@hansungnews)로 보내주세요.
- ※ 정답자 중 5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 ※ 추첨자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문항1. [1면]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는 우리학교 재단과 대학본부의 **ㅎ ㄱ ㅁ ㅂ ㄷ ㄹ ㅅ ㅈ ㅊ ㅋ ㆁ ㆁ**를 실시했다.

문항2. [3면] 선박의 안전을 규정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법은 무엇인가?
답: **ㅅ ㅂ ㄴ ㄹ ㅈ ㅊ**

문항3. [6면]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암각화, 노래, 춘화 등을 통해 **ㅅ ㅈ ㅍ ㅎ**을 했다.

정답양식) 이름 / 학부 · 학과 · 제1트랙 / 학번 / 연락처 / 문항1 정답 / 문항2 정답 / 문항3 정답

지난 호 정답) ① 감사 시행 세칙 ② 음주운전 ③ 간성

■ 낙산에 올라

‘이 병’은 WHO에서 2022년에 공식 질병으로 채택할 예정인 정신질환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2026년에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이 병’이란 게임 중독이다.

“우리 PC방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합니다.”

최근 PC방에서 이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요지는 ‘게임이용은 장애가 아니 앞으로는 게임을 즐기자’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 중독은 엄연한 질병이다. 게임에 과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게임을 하지 않을 때 불안이 느껴진다면 분명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게임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 자체를 더 억제하기 위해 ‘게임 중독’이라는 병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게임이 폭력성을 자극한다고 보도하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단편적인 예시를 보여주자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일각에서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범죄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게임은 단순히 ‘놀이’를 영어로 풀어 쓴 것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게임이란 주로 컴퓨터 게임을 의미한다. 적절히 이용할 경우 스트레스 해소, 새로운 콘텐츠를 통한 간접 경험 체험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종합 콘텐츠이다. 단순히 유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여러 제도로 게임을 억제하고 있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프로젝트 육성, 국제적인 인기를 구가할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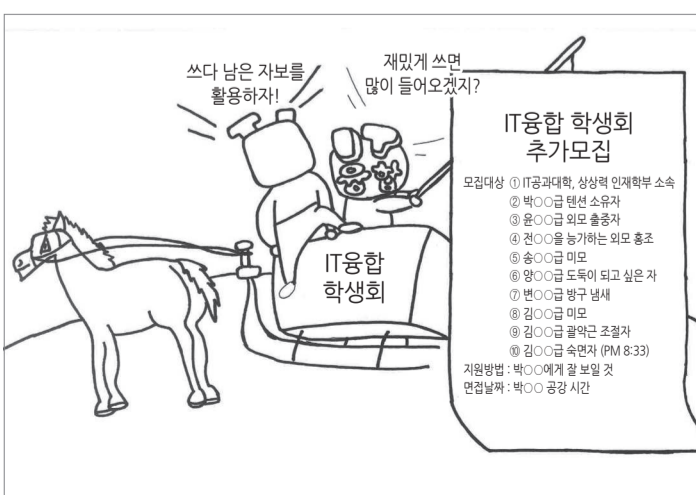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젝트이며 ‘Faker(본명 이상혁)’가 등장했고, 한국에서 개발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세계대회까지 개최됐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하나의 산업 분야로堂堂히 인정해 줄 경우 그 영향력은 폭발적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대에 발 빠르게 맞춰나가기려는 노력이 눈에 띄는 요즘이다. 우리 한성대 학교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수업이 개설됐고, 언론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언급한다. 그에 맞춰 변화된 ‘새로운 놀이’의 인식도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알파고와 바둑을 둘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바둑의 시대는 갔다.

김민지(인문 2)

#낙산세컷_장난스러운_대자보의_이상과_현실

심상우 기자



제34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 2019. 10. 18

세	상	에
단	,	
하	나	뿐
인		
당	신	의
		글

모집기간 9월 16일 ~ 10월 18일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제출방식 hansungnews@gmail.com
(e-mail로만 접수 가능)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 포 한성대신문 551호 (12월 2일 발행)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패
시 : 40만 원 및 상패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10pt / 당선 80pt (가작 60pt)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장선아 편집국장 010-9786-9709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페이스북 메시지 @hansungpresscenter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한성대신문